

남자 중학생의 기질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반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배주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질,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자 중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2개교 남자 중학생 1, 2학년 638명에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61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을 분석한 것이다. 상관 분석 결과, 반사회적 행동 경향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변인은 자극추구의 기질이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수동적 반응(수동관여, 수동비관여)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결과, 자극추구 기질과 부모양육의 직접 영향과 스트레스 반응 중 수동적 반응의 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기질과 부모양육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경로와 스트레스 반응을 매개하여 영향을 끼치는 경로를 모두 가정하는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양호하였다. 이 결과에 대한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기질, 부모의 양육행동, 스트레스 반응, 반사회적 행동경향

* 본 연구는 2006년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BK 지원으로 실시되었음.

** 한국청소년상담원, 교신저자, joomibae@kyci.or.kr

I. 서 론

청소년기에 나타내는 주요한 부적응적인 문제 중 하나가 공격성이 증가하거나 비행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리적, 심리적 변화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지만 특히 이러한 공격 및 비행경향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속해있는 안전한 사회 및 환경적 경계를 이탈할 수준의 높은 공격성과 비행경향마저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경향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어 온 것이 청소년들의 타고난 기질과 환경의 영향일 것이다. 기질이란 사람이 인생 초기부터 나타내는 정서와 행동 스타일로,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일관적이며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된다(Rothbart & Bates, 1998; Shiner, 1998). 이것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 및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Bates, 1989; Hartup & van Lieshout, 1995). 그 중 특히, 두려움의 부족이나 자극추구적인 경향 등의 기질적 특성이 반사회적 행동특성과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Hare, 1998), 쌍생아 연구 등을 통해 유전적 유사성이 밝혀지기도 하였다(Baker, Jacobson, Raine, Lozano & Bezajian, 2007).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중요 요인인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가족, 동료요인(Patterson, Reid, & Dishon, 1992), 인구 통계학적 요인(Rutter, Tizard, & Whitmore, 1970)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특히, 부모양육행동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부모의 무관심과 비일관적인 태도, 권위적,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 왔다(Dahlberg, 1998; Rey & Plapp, 1990). 또한 과보호적이지만 실제적인 돌봄이 적은 양육을 받은 청소년이 공격이나 비행, 품행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전혜경 외, 1998; Rey & Plapp, 1990).

이렇게 잘 알려진 두 가지 중요한 요인들과 함께 많이 거론되는 것은 청소년이 발달 과정을 통해 형성해 온 심리적 기제들이다. 즉, 자기 개념 등의 사회정보 처리 요인 및 정서처리 능력, 정서처리 과정 등의 정서조절 요인이 이에 포함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경험되는 스트레스에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반사회적 행동경향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스트레스 상태나 부정적 정서 상태를 피하기 위해 비행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임진현 · 이훈진, 2006, 재인용; Agnew, 1992; Western, 1994). 이것은 결국 청소년들이 타고난 기질 혹은 처한 환경 등의 중요한 요인들도 청소년들이 어떠한 스트레스 반응 혹은 정서조절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양육 태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들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은 각각 많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 하에서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최근 들어 Lengua(2006)가 종단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서로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Leve와 Kim, Pears(2005)도 또한 아동 초기의 기질과 가족환경 및 그 상호작용이 17세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예측한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기질과 부모양육태도가 함께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와 함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나 정서조절이 부모양육의 영향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고 되어 있어(김선숙, 2007; 박혜경 · 박성연, 2002),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정도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기질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반응을 매개하여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기질적 영향은 스트레스 반응의 매개효과 없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 결과는 제한적이라 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시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타고난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스트레스 반응기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한 연구목적이다. 즉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대해 그들의 기질이나 부모 양육태도가 끼치는 영향을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발달시켜 온 스트레스 반응기제가 매개하고 있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질과 반사회적 행동경향

신경생물학적 근거를 설명하는 한 가지 개념인 기질은 사람이 인생 초기부터 나타내는 정서와 행동 스타일로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일관적이며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된다(Rothbart & Bates, 1998; Shiner, 1998).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는(Derryberry & Rothbart, 1988; Rothbart & Bates, 1998; Shiner, Masten, & Tellegen, 2002; Tellegen, 1985) 기질의 특성을 긍정적인 정서성, 부정적 정서성 및 제한-주의 통제(constraint-attentional control)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loninger(1987)는 자극 추구(Novelty Seeking), 위험 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으로 구분하는 기질(temperament)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Gary(1987)는 개인적 특성을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와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로 나누었는데, 이들의 개념을 통합하여 살펴보면, 자극추구는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 신호를 추구하는 성향, 혹은 처벌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말하며, 행동 활성화체계 및 도파민 기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험 회피는 처벌이나 위험의 신호, 혹은 보상부재의 신호에 대해 행동이 억제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의미하며, 행동 억제 체계 및 세로토닌 기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즉 Cloninger의 자극추구 및 위험 회피 기질, Gary의 행동활성화체계와 행동억제체계의 두 가지 차원이 한 두 가지 기질 차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질적 특성과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대한 연구결과, 초기 아동기의 충동적인 기질 특성이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경향과 관련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Schwartz, Snidman, & Kagan, 1996; Shaw, Owens, Giovannelli, & Winslow, 2001). 높은 자극추구 경향이 있는 아동이 초기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보일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다(Tremblay, Pihl, Vitaro, & Dobkin, 1994). 특히 두려움의 부족이나 자극추구적인 경향 등의 기질적 특성이 반사회적 행동특성과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Hare, 1998), 쌍생아 연구 등을 통해

유전적 유사성이 밝혀지기도 하였다(Baker, et al., 2007).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이 보이는 공격성 및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경향들이 기질적 특성과 관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부모의 양육행동과 반사회적 행동경향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부모의 정신병리, 알콜 문제, 가정폭력 및 부모의 양육행동 등을 언급하고 있다(오경자 외 2005; Fendrich, Warner, & Weissman, 1999).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친밀도가 낮고(손승희·이은혜, 2004; 엄명용, 1998; Mize & Petite, 1997), 부모가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부모 감독 수준이 낮을때(Crik, 1997) 청소년 비행이 늘며, 부모가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고(Martsch, 2005), 부모가 일방적인 지시, 명령 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보이고(안귀덕, 1997), 신체적, 심리적 학대와 방임, 무관심 등이 높은 것이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수, 1998).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행동을 청소년 부적응 문제와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을 돌봄(care)와 과보호(overprotection)로 구성한 Parker와 Tupling, Brown(1979)의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한 청소년의 다양한 정신병리와 부모의 양육행동의 관계가 연구되어 왔다.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Parker 등(1979)이 사용한 개념인 부모의 과보호적 태도와 돌봄의 측면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는데, 과보호적이지만 실제적 돌봄이 적은 양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공격이나 비행, 품행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전혜경, 김경빈, 이종일, 1998; Rey & Plapp, 1990). 한편 문경주와 오경자(2002)는 PBI를 국내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 요인분석 하여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돌봄과 함께 자율성 존중이라는 새로운 요인을 밝혔는데, 특히 이러한 자율성 존중 척도가 비행과 높은 부적 상관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선행 연구의 결과 또한 다소 불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경향과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즉, 기존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돌봄 부족이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혹은 자율성 존중 부족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3. 스트레스 반응과 반사회적 행동경향

개인이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즉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하고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의 스트레스 조절, 정서조절 혹은 스트레스 대처에 따라 정신병리에 끼치는 영향이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최근 Connor-Smith와 Compas, Thomsen, Wadsworth, Saltzman(2000)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개인이 선택해서 나타내는 적극적인 대처방법과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수동적 반응으로 구분할 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원에 가까워지려는 관여대처와 스트레스 원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비관여 반응의 다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왔다. Compas와 Connor-Smith, Saltzman, Thomsen, Wadsworth(2001)은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다시 구분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관여적대처와 비관여대처간의 차이가 있음을 지지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원이나 관련된 생각 및 감정에 접근하는 관여적대처반응은 회피, 부인, 위축과 같이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지는 비관여대처반응보다 더 나은 적응을 예측한다는 것이었다. 세부적으로 관여대처반응은 일차와 이차통제전략으로 구분하여, 일차통제전략은 상황변화, 문제해결, 정서표현, 직접적인 정서조절과 같은 전략들을 통해 정서 및 생리적 반응들을 변화시키고자 것이고, 이차적통제 전략은 분산, 수용, 긍정적 사고와 같은 전략을 통해 현재의 상태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보았다(Connor-Smith et al., 2000; Weisz, McCabe, & Dennig, 1994). 이들의 연구는 주로 우울/불안, 건강문제 등의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를 많이 밝혀왔으며, 일차통제전략과 이차통제전략이 더 낮은 내면화문제, 건강문제를 예측한다고 하였다(Connor-Smith et al., 2000; Pennebaker, 1997; Wadsworth & Compas, 2002).

반사회적 행동경향과 관련된 연구로는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사회적 행동경향행동의 경우 회피적 대처방식과 관련된다는 것을 연구 결과(오경자 외, 2005)가 보고되고 있으며,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자기분산, 주의 전환 같은 적극적으로 주의를 밖으로 돌리는 비관여대처전략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반면 스트레스 사건에 수동적으로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유발한다는 결과(Gilliom, Shaw, Beck, Scholnberg, & Lukon, 2002; Gronlnick, Bridges, & Connell, 1996)가 제시되었다. 또한 류진숙과 현은미(2006)는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비교한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의 경우 비행 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소극적 대처의 '소망적 사고'에서는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비행청소년보다 일반청소년들이 더 높은 '소망적 사고' 수준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울·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이 적극적 대처에 따라 그들의 문제수준이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달리,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지닌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 회피적 반응이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4. 남자 청소년의 기질, 부모의 양육행동, 스트레스 반응과 반사회적 행동경향

청소년의 비행 및 공격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시기가 중학교 시기로 파악되고 있으며(청소년백서, 2006), 실제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바뀌면서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용하기는 하나 점차 개인의 조절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로 이 시기 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기질적 특성, 부모의 양육행동이 서로 영향을 끼치며 이것이 비행행동이나 공격성 등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여전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Lengua, 2006; Leve, et al., 2005). Leve 등(2005)의 연구에서는 5, 7, 10, 14, 17세의 기질과 양육태도 및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장기종단적으로 연구하였을 때 아동 초기의 기질, 가족환경 및 기질, 가족환경의 상호작용이 17세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예측한다고 하였으며, Lengua(2006)도 8-12세 청소년에 대한 3년간 장기종단 연구를 통해 아동의 기질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끼치며 부모의 거부와 비일관적인 양육행동도 이후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점차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떤 과정이나 매개영향에 의해 아동과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조절의 매개영향을 통해 공격 및 비행 등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김선숙, 2007; 박서정·김순옥, 2005; 박혜경·박성연, 2002), 이들 연구 대상의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의 아동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이들이 측정하고 있는 정서조절 방식이 정서표현, 정서억압 등의 다양성도 제한되어 있다. 특히 기질과 부모양육행동 요인들의 영향을 정서조절 혹은 스트레스 반응의 매개 과정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청소년의 기질, 부모의 양육행동 및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의 매개영향을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비행과 관련하여 최근 여자청소년들의 비행율이 증가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남자청소년의 비행이 83.4%로 나타나(문화관광부, 2003), 남자 중학생을 중심으로 이러한 매개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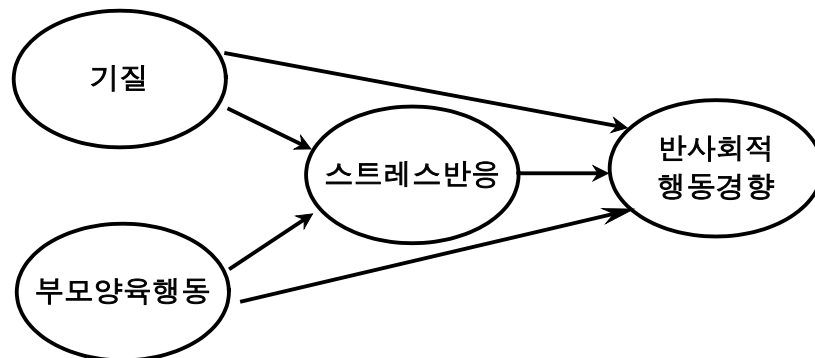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및 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스트레스 반응을 매개하여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특히 다양한 기질적 측면 및 부모양육태도, 스트레스 반응의 하위 요인 중 어떠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후 이들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반응을 매개하여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끼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남자 중학생의 기질 성향, 부모의 양육행동, 스트레스 반응의 하위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기질적 요인 중 자극추구적 성향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주는지,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는 과보호적인 태도나 돌봄 부족이 영향을 주는지 혹은 자율성 존중이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수동적반응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둘째, 이들 남자 중학생의 기질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을 모두 포함하여 모형 검증을 하였다.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스트레스 반응이 매개하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영향만 있는지, 혹은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한 모형 비교를 하였다. 가설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론 모형

2. 조사대상 및 절차

서울시에 소재한 남녀공학 중학교 1개교의 1, 2학년 남학생 339명과 경기도 소재 남자 중학교 1개교의 1, 2학년 남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박사 및 석사급 연구자가 설명을 한 후 자기보고형 질문지 묶음을 실시하였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하였다. 수거된 사례는 총 637례였으나 결측치가 많은

자료를 제외한 611사례가 최종 분석자료에 사용되었다. 청소년들의 평균연령은 14.12세였다.

3. 측정도구

1) 청소년 기질

Cloninger와 Przybeck, Svirakic, Wetzel(1994)이 제작한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오현숙과 민병배(2004)가 Cloninger와의 협의 하에 독일형 JTCI 12-18을 표준화한 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를 사용하였다.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의 4가지 기질 차원과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3가지 성격차원을 측정하며, 인내력을 제외한 각각의 척도들은 세 개 또는 네 개의 하위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JTCI는 4점 척도의 총 82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기질 차원만 사용되었다. 각 하위 척도의 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는 자극추구 .72, 위험회피 .81, 사회적 민감성 .63, 인내력 .70이었다.

2)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사용하였는데, PBI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Parker 등(1979)이 개발하였으며,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각각 25문항씩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감사(Gamsa, 1987)가 5개의 부정문항을 긍정문항으로 개정한 PBI를 송지영(1992)이 번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경주와 오경자(2002)가 청소년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한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사용하였다. 문경주와 오경자(2002)는 전반적인 자료분석 이전에 PBI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과보호 차원이 하위 두 요인으로 나뉘어 총 세 요인이 확인하였으며, 각각 정서

적 보살핌 및 따뜻함과 관련되는 '돌봄' 요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격려하는 내용의 '자율성 존중' 요인, 사생활을 침범하고 의존성을 유발하는 침입적 행동과 관련되는 과보호적 특성을 '과잉간섭'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였고, 둘 간의 상관이 돌봄 요인의 경우 $r(308)=.55(p<.01)$, 자율성 존중 요인의 경우 $r(308)=.62(p<.01)$, 과잉간섭 요인의 경우 $r(308)=.72(p<.01)$ 로 높은 상관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경주와 오경자(2002)가 사용한 동일한 하위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부모간의 양육행동을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는 아버지 자료는 .89, .78, .56, 어머니 자료는 .88, .77, .65이었다.

3)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반응 질문지(Responses to Stress Questionnaire: RSQ)는 Conner-Smith 등(2000)이 제작한 척도로 특정 스트레스 원인이나 스트레스 영역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와 비자발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57문항의 척도이다. 이 척도는 각 3문항씩 모두 1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시 5개의 상위요인으로 묶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차통제관여대처(9문항, 문제해결, 정서표현, 정서조절의 3가지 하위요인 포함), 이차통제관여대처(12문항, 주의분산, 수용, 긍정적 사고, 인지적 재구성 하위요인 포함)와 비관여통제(9문항, 회피, 부인, 소망적 사고 하위요인 포함), 비자발적관여 반응(15문항, 침투적 사고, 반추적사고, 정서적 각성, 생리적 각성과 충동적 행동)과 비자발적 비관여반응(12문항, 정서적 마비, 인지적 추론, 도피, 행동하지 않음의 하위요인 포함)이 그 5개의 상위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박사 2인이 함께 질문지를 번역한 후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심리학 석사 1인에게 역번역을 하게 한 후, 다시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능통한 다른 심리학 박사 및 석사 3인에게 문항들을 점검하게 하였으며, 원 척도에서는 9개 문항에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으나 그러한 예들이 문화적 차이로 다소 어색할 것으로 보고 본 척도에서는 선택문항을 없애고 단지 그런 반응 경향

이 있는지 여부만을 다른 문항과 마찬가지로 답하도록 수정하였다. 그 결과 척도의 Cronbach's α 는 .84였다.

예비연구 결과를 통한 요인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일차적인 통제관여대처와 이차적 통제관여대처가 같은 요인을 구성하고 비관여통제와 비자발적 관여반응, 비자발적 비관여반응이 또 다른 요인을 구성하는 2요인으로 구성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비관여통제의 경우 양쪽 요인에 모두 부하계수가 높고, 선행 연구에서 이 변인과 반사회적 행동경향과의 관계가 비일관적인 것을 참고하여 이를 제외하고, 일차 통제관여와 이차통제관여를 '적극적 대처'로 구성하고, 비자발적관여와 비자발적 비관여를 '수동적 반응'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또한 용어적으로 '비자발적 관여' 등의 용어가 어렵고 불편하여 그 의미만을 취하여 '수동관여'와 '수동비관여'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일차관여통제 .72, 이차관여통제 .74, 수동관여 .86, 수동비관여 .79로 모두 양호하였다.

4) 반사회적 행동경향

Achenbach(1991)가 개발한 Youth Self Behavior Check List를 오경자 등(2001)이 한국형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자기보고형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를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119문항)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마다 '전혀 없다'는 0점, '가끔 보인다'는 1점, '매우 심하다'는 2점 등 3점 척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 비행, 공격성 등의 8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63에서 .85까지 양호하였고, 척도 간 상관을 통해 확인된 수렴타당도는 $r=.34$ 에서 $r=.97$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비행, 공격성의 2개 척도 2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3과 .85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13.0.을 이용하여 자료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행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AMOS 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을 이용하는데, 모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적합도 지수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합도 지수가 자료에 잘 부합하면서 동시에 간명한 모형을 선호해야 한다는 것이다(홍세희, 2000).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비교 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 부합치(Normed Fit Index: NNFI or Tucker-Lewis Index: TLI), 표준 부합치(Normed Fit Index: NFI)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일반 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적합도 지수들은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본다. RMSEA의 경우,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 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이와 함께 카이 제곱 검증, 즉 확률치(p값)를 사용하여 χ^2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하다고 보는 검증방법은 χ^2 값이 표본의 크기와 다변량 정상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합도 지수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전체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는 고려하지 않았고, 경로의 유의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 검증에만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각 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상관관계는 <표1>과 같다. 기질, 지각된 부모의 양육 행동, 스트레스 반응과 반사회적 행동 경향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기질의 하위 요인들은 유의미하기는 하나 미약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척도는 유의하지 않거나 혹은 매우 약한 정적 혹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각 척도들 간의 유사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시사되었다.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하위 척도들인 돌봄과 자율성 존중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57, p<.001$), 반면 과잉간섭과 돌봄, 과잉간섭과 자율성 존중은 서로 $-.28 \sim -.38(p<.01)$ 의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스트레스 반응은 적극적 대처와 수동적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극적 대처의 하위요인인 일차통제관여와 이차통제관여의 상관도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r=.67, p<.001$), 수동적 반응의 하위요인인 수동관여와 수동비관여도 서로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r=.78, p<.001$). 반사회적 행동경향의 하위요인인 공격성과 비행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58, p<.001$).

남자 청소년의 기질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자극추구나 위험회피 모두 부모의 과잉간섭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의 돌봄과 자율성존중과 같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기질 두 요인인 자극추구나 위험회피 성향은 모두 경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돌봄과 자율성 존중은 청소년 기질 요인 중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기질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에서, 자극추구는 ‘적극적 대처’ 요인인 일차통제관여와 이차통제관여와의 상관은 매우 미약했으나 ‘수동적 반응’ 요인들(수동관여, 수동비관여)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r=.27, p<.01$), 위험회피와 ‘적극적 대처’ 요인들 및 ‘수동적 반응’ 요인들과의 상관은 모두 유의미하였으나 특히 수동적 반응 요인들과의 상관은 높은 편이었다($r=.50, p<.001$).

기질과 반사회적 행동경향도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자극추구 기질 특성과 공격성의 상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r=.45, p<.001$), 자극 추구와 비행 간의 상관관계 또한 유의미하였다($r=.37, p<.01$). 위험회피의 기질 경향과 공격성 및 비행 간의 상관도 $.14 \sim .28(p<.01)$ 로 유의미한 편이었다. 인내력과 반사회적 행동경향과의 상관도 유의미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반응간의 상관의 경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않으나 몇가지 요인간의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돌봄의 경우 수동관여($r=-.10, p<.01$), 수동비관여($r=-.18, p<.05$)의 수동적반응과 부적상관이 강하지는 않으나 유의미하였으며, 자율성존중의 경우에는 일차통제관여($r=.10, p<.05$), 이차통제관여($r=.10, p<.05$)의 적극적 대처와 정적관계를 나타내고 수동비관여반응($r=-.14, p<.01$)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과잉간섭의 경우에는 수동관여($r=.17, p<.05$), 수동비관여($r=.45, p<.001$)의 수동적반응과의 정적상관이 유의미하여 과잉간섭이 높을수록 수동적인 반응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경향이 높았다.

부모양육태도와 반사회적 행동경향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미하였는데, 돌봄과 자율성존중의 부모양육태도는 공격성 및 비행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는데 비해, 과잉간섭 요인은 공격성 및 비행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공격적이고 비행을 나타내는 경향은 과잉으로 간섭할 수록 또한 돌봄과 자율성 존중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시사되었다.

스트레스반응과 반사회적 행동경향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적극적대처의 하위 변인들과 반사회적 행동경향의 하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미약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에 비해 수동적반응의 하위 변인들과 반사회적 행동경향의 하위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29 \sim .46$ 으로 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분석 결과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청소년기질													
1. 자극추구	1.00												
2. 위험회피	.16*	1.00											
3. 사회적민감성	-.12*	-.09	1.00										
4. 인내력	-.27**	-.17*	.28**	1.00									
부모양육행동													
5. 돌봄	-.13*	-.11*	.19*	.25**	1.00								
6. 자율성존중	-.14*	-.11*	.13*	.21**	.57***	1.00							
7. 과잉간섭	.16*	.23**	-.03	-.19*	-.26**	-.39**	1.00						
스트레스반응													
적극적대처													
8. 일차통제관여	.04	.19*	.32**	.23**	.08	.10*	.01	1.00					
9. 이차통제관여	.10*	.22**	.22**	.07	.02	.10*	-.02	.67***	1.00				
수동적반응													
10. 수동관여	.27**	.50**	.04	-.12*	-.10*	-.07	.17*	.52	.50	1.00			
11. 수동비관여	.27**	.49**	-.10*	-.18*	-.18*	-.14*	.22**	.37**	.42***	.79***	1.00		
반사회적 행동경향													
12. 공격성	.45***	.27**	-.05	-.18*	-.16*	-.19*	.28**	.18*	.18*	.46***	.43***	1.00	
13. 비행	.37**	.13*	-.05	-.22**	-.24**	-.27**	.21**	.12*	.19*	.29**	.35**	.58***	1.00
M	18.96	18.00	14.78	13.43	54.02	23.58	10.01	20.41	26.88	30.23	20.61	8.44	2.88
(SD)	(5.95)	(6.87)	(4.09)	(3.38)	(11.77)	(6.81)	(5.67)	(4.74)	(6.50)	(8.96)	(6.18)	(5.19)	(2.16)

*** p<.001, **p<.01, *p<.05

2. 기질, 지각된 양육행동, 스트레스 반응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끼치는 영향

기질과 지각된 양육행동, 스트레스 반응의 어떠한 하위 요인들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2>에 제시하였다.

<표 2>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대한 기질, 지각된 양육행동, 스트레스 반응의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R ²	F	β	t
기 질	자극추구	.261	53.53***	.48	11.27***
	위험회피			.16	4.72***
	사회적민감성			.05	.85
	인내력			-.14	-1.99*
부모양육	돌봄	.322	23.39***	-.06	-2.23*
	자율성존중			-.07	-1.57
	과잉간섭			.27	5.39***
스트레스반응	일차통제관여	.226	44.16***	-.08	-1.23
	이차통제관여			-.00	-.06
	수동관여			.23	4.82***
	수동비관여			.24	3.84***

*** p<.001, **p<.01, * p<.05

<표 3>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대한 기질, 지각된 양육행동, 스트레스반응의 단계적 회귀분석

예측변인		R ²	ΔR^2	F	β	t
기질, 부모양육 및 스트레스반응	1. 자극추구	.226		177.61***	.38	10.14***
	2. 수동관여	.333	.107	151.84***	.16	4.19***
	3. 과잉간섭	.358	.028	114.46***	.16	4.15***
	4. 돌봄	.365	.008	88.72***	-.04	-2.41*
	5. 수동비관여	.370	.006	72.55***	.05	2.38*

*** p<.001, **p<.01, * p<.05

기질차원은 전체 변량의 26.1%를 설명하였으며, 부모양육행동은 32.2%를, 스트레스 반응은 22.6%의 변량을 설명하였다($F(4, 611)=53.53, p<.001$; $F(3, 611)=23.39, p<.001$; $F(3, 611)=44.16, p<.001$).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기질 차원 중에서는 자극추구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위험추구도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내력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녔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는 과잉간섭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돌봄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반면, 자율성존중은 의미있는 영향력을 끼치지

지 않았다. 스트레스 반응중에서는 적극적 반응의 하위변인인 일차통제관여와 이차통제관여는 의미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반면, 수동관여 및 수동비관여의 수동적 반응의 영향력을 매우 유의미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는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기질 및 부모의 양육행동, 스트레스 반응의 하위 변인들을 모두 함께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는데,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극추구, 수동관여, 과잉간섭, 돌봄, 수동비관여 변인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37%를 설명하였다($F(5, 611) = 72.55, p < .001$).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기질 차원 중에서는 자극추구,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는 과잉간섭과 돌봄, 스트레스 반응 중에서는 수동관여와 수동비관여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인들은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3. 기질, 지각된 양육행동 스트레스 반응 및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대한 모형 검증

이론적 배경에 제시된 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기질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반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시행하였다. 기질 차원 중에서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극추구를 모형에 포함하고, 이를 잠재변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자극추구의 하위척도 4가지를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요인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돌봄과 자율성 존중, 과잉간섭 요인 중 회귀분석 결과에서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 돌봄과 과잉간섭 요인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반응의 경우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 수동적관여와 수동적비관여 변인만을 포함하여 '수동적 반응'이라는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우선 측정구조를 검증한 결과, 자극추구의 두 하위변인 간의 공분산을 가정하는 경우 모형의 적합도는 받아들일만한 수준이었으므로 이를 채택하였다($\chi^2=221.65, df=29, N=611, p < .001, GFI=.959, NFI=.924, TLI=.896, CFI=.901, RMSEA=.072$).

이론구조 검증에서는 기질, 양육행동, 스트레스 반응에서 반사회적 행동경향의 직

집경로만을 설정한 가산모형, 기질과 양육행동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완전매개 하는 완전매개모형과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의 직접적 영향과 스트레스 반응의 매개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부분매개 모형을 비교하였다. 검증 결과, <표 4>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X^2=194.60$ df=29, $N=611$ $p < .001$, GFI=.964, NFI= .933, TLI=.910, CFI= .942, RMSEA= .072). 이 모형의 경로도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으며,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정 없이 모형을 받아들일기로 하였다.

즉, 반사회적 행동경향은 자극추구의 기질적 특성의 직접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며, 동시에 양육태도의 직접영향도 작용하지만 이와 함께 이들이 스트레스 반응, 특히 수동적 스트레스 반응의 매개영향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델 부합도 지수

모 형	X^2	df	GFI	N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221.65(p=.00)	29	.959	.924	.896	.933	.078
가산모형	315.11(p=.00)	31	.943	.892	.856	.901	.091
완전매개	449.82(p=.00)	31	.923	.845	.788	.854	.111
부분매개	194.60(p=.00)	29	.964	.933	.910	.942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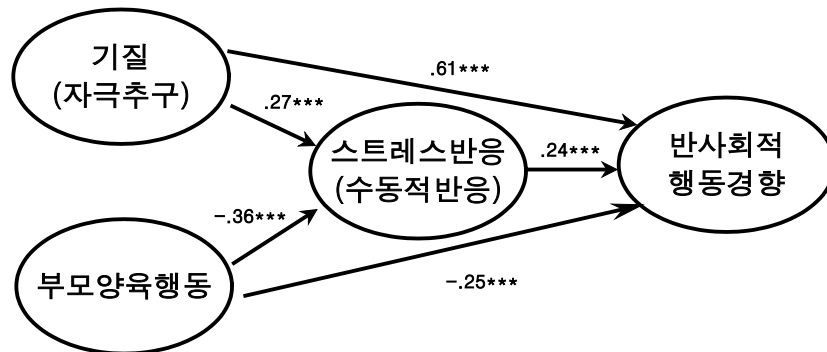
<표5> 기질과 양육행동이 스트레스 반응의 매개를 통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모형의 경로 계수와 t 검증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측정 구조			
부모 양육행동 → 부모의 과잉간섭	-.63	-.59	-5.78***
부모 양육행동 → 부모의 돌봄	1.00 +	.46	
자극추구(기질) → 자극추구1	1.00 +	.30	
자극추구(기질) → 자극추구2	2.00	.47	7.37***
자극추구(기질) → 자극추구3	1.61	.41	6.96***
자극추구(기질) → 자극추구4	2.97	.74	7.76***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수동적 반응 → 수동관여	1.39	.87	20.91***
수동적 반응 → 수동비관여	1.00+	.90	
반사회적 행동경향 → 비행	1.00+	.68	
반사회적 행동경향 → 공격성	3.15	.86	17.28***
이론 구조			
자극추구(기질) → 수동적 반응	2.59	.27	5.04***
자극추구(기질) → 반사회적 행동경향	1.43	.61	7.15***
부모 양육행동 → 수동적 반응	-.38	-.36	-6.00***
부모 양육행동 → 반사회적 행동경향	-.07	-.25	-4.42***
수동적 반응 → 반사회적 행동경향	.06	.24	5.43***

+비표준 계수는 1로 고정함.

*p<.05, ** p<.01 *** p<.001



[그림 2] 부분매개모형의 경로도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p<.05, ** p<.01 *** p<.001)

V. 논 의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이 타고난 기질적 특성의 영향과 함께 환경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경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이것이 남자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대처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공격성과 비행행동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은 자극추구의 기질적 특성 및 수동적 반응(침투적 사고, 반추적 사고, 정서적 각성, 생리적 각성, 충동적 행동, 정서적 마비, 도피, 행동하지 않음)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지각된 부모양육 태도와 관련하여 반사회적 행동경향은 과잉간섭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며, 보살핌이나 자율성 존중과는 낮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반응에 있어 적극적 대처(문제해결, 정서표현, 정서조절, 분산, 수용, 긍정적 사고, 인지적 재구성 등)와 반사회적 행동경향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수동적 반응과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경자 등(200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은 회피적 대처방식과 관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모든 변인 중에서 기질 차원 중 자극추구 기질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가장 컸으며, 그 외에는 과잉간섭과 돌봄의 부모양육행동, 스트레스 반응 중에서는 수동적 대처의 하위변인의 설명력만이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의 기질 중 자극추구 경향이,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과잉간섭과 돌봄이,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수동적 반응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해주는 결과였다.

둘째, 남자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반응의 매개 효과를 통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된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에서도 기질과 양육의 직접영향 뿐아니라 스트레스 반응 중 수동적반응의 매개를 통해 영향을 끼치는 부분매개모형이 가장 적합도가 높아 채택되었다. 즉, 자극추구

기질특성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직접 영향이 표준화된 경로계수 .61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그 외에도 부모의 과잉간섭과 돌봄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뿐아니라 기질과 부모양육행동이 스트레스 반응의 매개에 의해서도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끼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는 남자 청소년의 기질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이 그들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의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김선숙, 2007; 박서정·김순옥, 2005; 박혜경·박성연, 2005; Lengua, 2006)이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혹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이나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등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이들의 각각의 영향력이 아닌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와 함께 스트레스 반응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매개모형이 선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기질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가장 우세하고 크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미치는 직접 영향 또한 유의미하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반응을 매개하여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영향이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결과이다.

최근 Lengua(2006)는 가족 면담 및 다양한 검사, 관찰을 통해 3년 동안 8세-12세 아동들의 기질과 그들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서로 상호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상호영향을 통해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기질적 특성이 우세하고 강하며 이것이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부모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적 영향으로 주고받으며 조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미치는 기질적 특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는 하나 부모양육의 역할 또한 과소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또한 기질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직접적 영향 뿐아니라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은 비록 기질적인 영향이 우세하더라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강화시키고 변화시키므로써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결과이다.

그와 함께 본 연구 결과의 의의 중 하나는, 선행연구 결과들에서 시사되어온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기질 하위 요인, 부모의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 및 스트레스 반응의 하위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것일 것이다.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기질 특성으로는 자극추구 성향 혹은 행동활성화체계가 언급되어 왔으며(Hare, 1998; Tremblay, et al., 1994),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자극추구적 기질특성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선행연구에서는 다소 불일치되어 과보호경향과 돌봄 부족이 반사회적 행동경향과 관련된다는 결과(전혜경 외, 1998; Rey & Plapp, 1990)와 자율성 존중이 관련된다는 결과(문경주·오경자, 2002) 등이 있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과보호 경향과 같은 개념인 과잉간섭과 돌봄 부족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 대처가 아닌 수동적 반응이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경자 등(2005)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러한 결과들은 임상적으로 시사점과 추후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떠한 개입을 해야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자 중학생들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의 경우 그들의 기질적 성향, 특히 자극추구적 기질특성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일 수 있겠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도 지적되어 왔으나 부모양육 및 스트레스 반응과 비교하여서도 가장 우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일 수 있겠다. 즉, 이들의 호기심과 자극추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친사회적 자극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교과 및 일상생활에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욕구가 반사회적 방향으로 발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모양육 태도의 경우에도, 실제 비행 예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미 검증하고 확증하여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정책부(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olicy)에서 확증한 청사진 프로그램들이 다중체계 치료(Multisystemic Therapy), 기능적 가족치료(Functional Family Therapy), 다면적 위탁 가정 치료(Multidimensional Treatment of Foster Care)와 같은 부모교육에 초점을 둔 것인 것을 볼 때, 이러한 부모양육 태도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부모교육의 방향은 과잉간섭이나 과보호는 줄이면서도 실제적이고 정서적인 돌봄을 늘리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남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반응이 그들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은 명확하여 이를 위한 개입을 해야함은 확실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입을 해야 할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히려 수동적반응이 이들 기질적 특성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더욱 강하게 매개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어,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지닌 청소년에 대한 개입방법으로 문제해결적 접근, 인지적 재구조화, 긍정적 사고 등의 적극적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던 기존의 방식(Brenzina, 2000)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적극적 대처는 반사회적 행동경향과 거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반사회적 행동 경향을 보이는 남자 중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문제가 단지 문제해결적 접근의 부족이나 인지적 재구조화의 부족이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집단형으로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들 나름의 문제해결방식이나 사회기술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보다는 오히려 생리적 각성이나 충동적 행동, 도피와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수동적반응이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반사회적 행동경향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높은 생리적 각성과 충동적 행동, 도피 등의 스트레스에 대한 수동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아마도 적극적 대처를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수동적 반응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며, 이에 대한 보다 확증적인 결과는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제한점은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지필검사로만 이루어진 연구라는 것이다. 기질과 양육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 등과 같은 중요한 타인의 보고가 함께 사

용되어야 하며, 간단한 면담을 통해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평가와 반사회적 행동경향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위한 협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자기보고식 지필검사만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한 여러 명의 정보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평가방법을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임상군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사회 일반전집에 속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일반전집에 속한 청소년 중에서도 반사회적 행동경향이 높은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문제와 임상군의 문제가 질적 혹은 양적으로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임상군을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스트레스 반응을 매개하여 반사회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횡단연구가 아닌 종단연구 설계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는 기질과 양육행동이 원인인지 혹은 현재의 문제상태가 이들을 악화시킨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넷째, 이 연구는 여자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고 남자 중학생만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청소년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 스트레스 반응과 반사회적 행동경향간의 관계에 대한 윤곽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위의 제한점들을 보완한 좀 더 정교한 연구들에 의해 이 문제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선숙(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2권, 겨울호, pp.65-95.
- 김현수(1998). 청소년 비행행동의 판별요인 분석. *신경정신의학*, 제37권, pp.24-48.
- 류진숙·현은미(2006).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pp.209-221.
- 문경주·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1권, pp.29-43.
- 박서정·김순옥(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4호, pp.35-53.
- 박혜경·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8호, pp.87-98.
- 손승희·이은혜(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pp.167-177.
-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제31권, pp.979-991.
- 엄명용(1997). 청소년 가출 및 가족기능과 가족체계 유형과의 상호작용.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1권, 133-177.
- 안귀덕(1997). 교육심리학에서 본 한국 교육의 회고와 21세기를 위한 방향 모색: 발표 - 정의적 영역: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회고와 전망. *교육심리연구*, 제11권, 33-48.
-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경자·김은이·도레미·어유경(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4권, pp.53-71.
- 오현숙·민병배(2004). *기질 및 성격 검사*. 서울: 마음사랑.
- 임진현·이훈진(2006).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정서인식 및 정서조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5권, 제4호, pp.1141-1151.

- 임인섭(2006). 초기 청소년의 정서능력과 뇌 정보처리 특성이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제9권, 제4호, pp.307-319.
- 전혜경 · 김경빈 · 이종일(1998). 청소년 품행장애와 부모 양육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제9권, 제1호, pp.67-81.
- 한국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백서.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pp.161-178.
- Achenbach, T. M.(1991).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14-18, YSR, and TRF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gnew, R.(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30, pp. 47-87.
- Baker, L. A. & Jacobson, K. C., Raine, A., Lozano, F. I., & Bezdjian, S.(2007). Genetic and enviornmental bases of childhood antisocial behavior: A multi-informant twin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16, pp.219-235.
- Bates, J. E.(1989). Concepts and measures of temperament. In G.A. Kohnstamm, J. A. Bates, & M. K. T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 3-26). New York: Wiley.
- Bae, J. M., Kim, H. Y., Kim, H. Y., & Kim, E. Y.(2006).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and coping styles on psycho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ocial Issues*.
- Brenzia, T.(2000). Delinquent problem-solving: An interpretive framework for criminological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7, No. 1, pp.3-30.
- Cloninger, C. R.(1987). A systemic method of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44, pp.583-588.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irakic, D. M., & Wetzell, R. D.(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 use.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Missouri: Center for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 Compas, B. E., Connor-Smith, J. K., Saltzman, H., Thomsen, A. H., & Wadsworth, M. E.(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127, pp.87-127.
- Connor-Smith, J. K., & Compas, B. E.(2002). Vulnerability to stress: Coping as a mediator or moderator of sociotropy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26, pp.39-55.
- Connor-Smith, J. K., Compas, B. E., Thomsen, A. H., Wadworth M. E., & Saltzman, H. (2000). Responses to stress: Measurement of coping and reactiv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68, pp.976-992.
- Crick, N. R.(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aggression: Links to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3, pp.610-617.
- Dahlberg, L. L.(1998). Youth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 major trends, risk factors, and prevention approache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14, pp.259-272.
- Derryberry, D., & Rothbart, M. K.(1988). Arousal, affect, and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pp.958-966.
- Fendrich, M., Warner, V., & Weissman, M. M.(1999).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dep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6, No.1, pp.40-50.
- Gamsa, A.(1987). A note on a modificat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Th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Vol.60, pp.291-294.
- Gary, J. A.(1987). *The psychology of fear and stres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lom, M., Shaw, D. S., Beck, J. E., Schonberg, M. A., & Lukon, J. L.(2002). Anger

- regulation in disadvantaged preschool boys: strategies, antecedents, and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8, No. 2, 222-235.
- Grolnick, W.S., Bridges, L. P., & Connell. J.(1996). Emotion regulation in two-year-olds: Strategies and emotional expression in four contexts *Child Development*, Vol. 67, No. 3, pp. 928-941
- Hare, R. D.(1998). Psychopathy, affect and behavior. In D. J. Cooke, A. E. Forth, & R. D. Hare (Eds.), *Psychopathy: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ociety* (pp. 105-137).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ing.
- Hartup, W. W., & van Lieshout, C. F. M.(1995). Personality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655-687.
- Herbert, J., & Martinez, M.(2001). Neural mechanism underlying aggressive behavior. In: Hill J., & Mauhgan, B. (Eds.), *Conduct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Leve, L. D., Kim, H. K., & Pears, K. C.(2005). Childhood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rajectories From Ages 5 to 17.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33, No.5, pp.505-520.
- Lengua, L. J.(2006). Growth in Temperament and Parenting as Predicting as Predictors of Adjustment During Children's Transition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2, Vo.5, 819-932.
- Martsch, N.(2005). A Comparison of Two Group Interventions for Adolescent Aggression: High Process Versus Low Proces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15, pp.8-18.
- Mize, J., Pettit, G. S.,(1997). Mothers' social skills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68, 312-321.
- Patterson, G. R., Reid, J., & Dishon, T.(1992). A social learning approach: IV.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Publishing Co.

- Parker, G., Hadzi-pavlovic, D., Greenwald, Steven, & Weissman, M.(1995). Low parental care as a risk factor to lifetime depression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33, pp.173-180.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52, pp.1-11.
- Pennebaker, J. W.(1997). Writing about emotional experiences as a therapeutic process. *Psychological Science*, Vol.8, pp.162-166.
- Raine, A.(1993). *The psychopathology of crime: Criminal behavior as a clinical disorder*. San Diego: Academic Press.
- Rey, J. M., & Plapp, J. M.(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Rothbart, M. K., & Bates, J. E.(1998). Tempera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Vol.,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emotional personality psychopathology: Vol. 1. Theory and methods* (pp.315-340). New York: Wiley.
- Rutter, M., Tizard, J., & Whitmore, K.(1970). *Education, health and behavior*, London: Longmans.
- Schwartz, C. E., Snidman, N., & Kagan, J.(1996). Early childhood temperament as a determinant of externalizing behavior in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8, pp.527-537.
- Shaw, D. S., Owens E. B., Giovannelli, J., & Winslow, E. B.(2001). Infant and toddler pathways leading to early externalizing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40, pp.36-43.
- Shiner, R. L.(1998). How shall we speak of children's personalities in middle childhood? A preliminary taxonomy. *Psychological Bulletin*, Vol.124, pp.308-332.
- Shiner, R. L., Masten, A. S., & Tellegen, A.(2002).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in emerging adulthood: Childhood antecedents and concurrent

- adap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3, pp.1165-1177.
- Skinner, E. A., Edge, K., Altman, J., & Sherwood, H.(2003). Searching for the structure of coping: A review and critique of category systems for classifying ways of cop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129, pp.216-269.
- Tellegen, A.(1985). *Structure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H. Tuma & J.D. Maser(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pp.681-70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Tremblay, R. E., Pihl, R. O., Vitaro, R., & Dobkin, P. L.(1994). Predicting early onset of male antisocial behavior from preschool behavio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51, pp.732-739.
- Wadsworth, M. E., & Compas, B. E.(2002). Coping with family conflict and economics strain: The adolescent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 243-274.
- Weisz, J. R., McCabe, M. A., & Dennig, M. D.(1994).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among children undergoing medical procedures: Adjustment as a function of coping sty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2, pp.324-332.
- Western, D.(1994).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affect regulation: applications to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Vol.62, pp.643-667.

ABSTRACT

The Influences of Temperament and Perceptions Regarding Parenting on Antisocial Behavior in Middle School Boys :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Reactivity

Bae, Joo-Mi*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emperament,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stress responses (active coping and passive reaction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responses on antisocial behavior. A total 611 adolescents were administered a self-reporting exercise; the measures of Junior Temperament Character Inventory(JTCI),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 the Korean Youth Self Report(YSR), and the Responses to Stress Questionnaire(RSQ). The results indicated that novelty seeking we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associated with antisocial behavior. Novelty seeking and perceived parental over-control, care and passive response were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tisocial behavior.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that novelty seeking and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had both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which in turn were mediated by passive responses to antisocial behavio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novelty seeking,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nd high passive responses were risk factors for antisocial behavior and the influences of temperament. Moreover, it was also found that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on antisocial behavior might partially depend on the levels of stress responses in adolescence.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Temperament, Parenting, Stress Response, Externalizing Problem

투고일 : 12월 9일, 심사일 : 4월 9일, 심사완료일 : 4월 20일

* Korean Youth Counseling Institute